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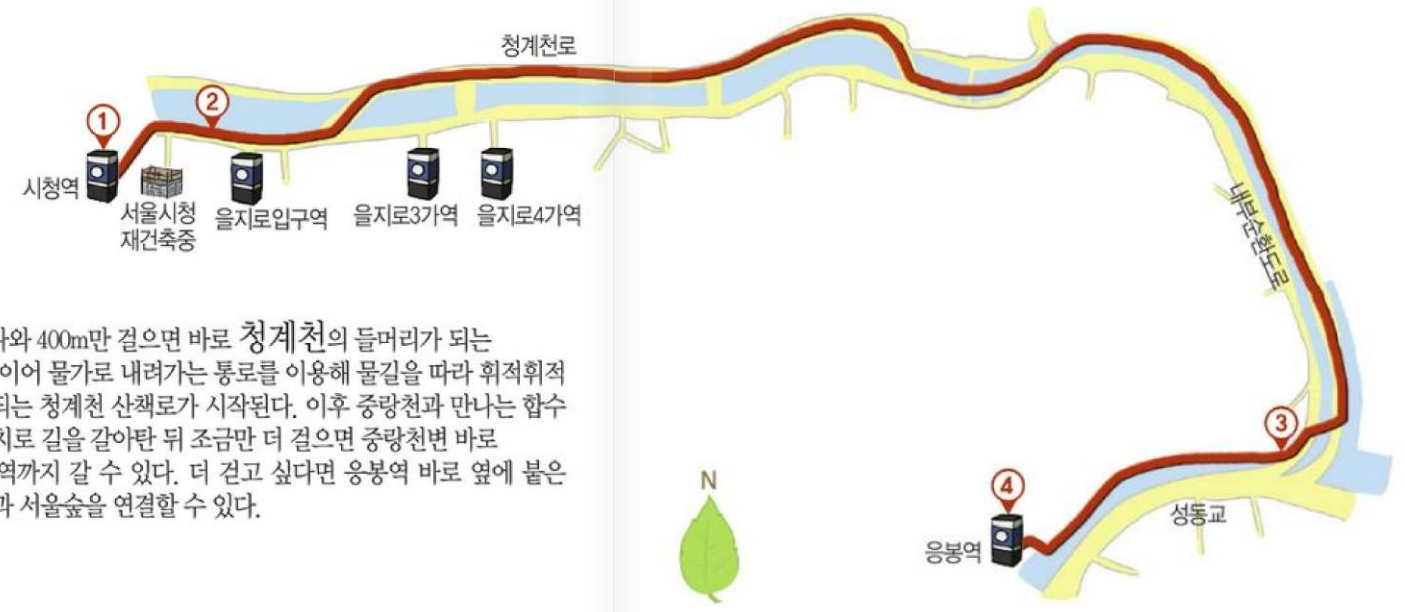


17 도심과 자연이 소통하는 '청계천길'

빌딩 숲 아래 흐르는 서울의 생태 베네치아

📍 10.4km ⌚ 3시간 소요 📌 중급

① 시청역(지하철 1호선, 2호선) 4번 출입구 → ② 청계천 → ③ 중랑천 합수지점 → ④ 응봉역(중앙선) 2번 출입구



시청역 4번 출구를 나와 400m만 걸으면 바로 청계천의 들머리가 되는 청계광장이 나온다. 이어 물가로 내려가는 통로를 이용해 물길을 따라 휘적휘적 걸으면 2시간 정도 되는 청계천 산책로가 시작된다. 이후 중랑천과 만나는 합수머리에서 중랑천 둔치로 길을 갈아탄 뒤 조금만 더 걸으면 중랑천변 바로 옆으로 자리한 응봉역까지 갈 수 있다. 더 걷고 싶다면 응봉역 바로 옆에 붙은 전망 좋은 응봉공원과 서울숲을 연결할 수 있다.



2 청계천
 청계천은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자연하천으로 존재하던 곳이다. 하지만 유량의 변화가 심해 비가 적으면 물이 마르고, 또 많이 내리면 넘쳐서 피해를 일으키곤 했다. 그래서 태종 때부터 하천정비를 시작했고, 조선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하천공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금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 것은 영종 때부터이고,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개천 위가 덮이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다니는 이중 덮개가 씌워졌다. 그러던 것을 서울시가 2003년부터 복원사업을 시행하여 고가도로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현재의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하천으로 재탄생시켰다.